

춘천시·춘천교육지원청

'정원교육도시' 조성 맞손

춘천시(시장 육동한)와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진호)이 '정원교육도시' 조성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육동한 시장은 23일 시청 접견실에서 장진호 교육장과 양 기관 관계자들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내 꿈나무 정원사 양성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춘천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은 정원교육을 통한 호수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강사, 재료, 학교 정원가꾸기 지원을 비롯해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정원시설에 대한 이용을 제공한다. 교육지원청은 유·초·중등 교육 과정에 본 사업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선정하는 등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해 강원명진학교와 춘천고대부설초 2곳을 대상으로 봄내꿈나무 정원사 양성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는 총 11개 학교가 참여해 250여 명의 봄내 꿈나무 정원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원도시' 춘천이 '정원교육도시' 춘천으로 발돋움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춘천이 진정한 정원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진호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원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횡성군,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접종' 실시

횡성군은 고령층의 중증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26년 기준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23)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은 고령층에서 폐렴, 뇌수막염, 균혈증 등 치명적인 중증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환절기를 앞두고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접종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폐렴구균(PPSV23)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이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횡성군보건소 예방접종실 운영시간
· 평일 접수마감: 오전 09:00 ~ 11:30 / 오후 13:00 ~ 15:00

횡성군 보건소 예방접종실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다.

단,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기관별로 진료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접종 당일에는 건강 상태가 양호할 때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두바이 월드헬스 엑스포 2,167만 달러 수출 계약

수출상담 52% ↑ · 수출계약 23% ↑, 작년 Arab Health 대비 전 부문 성장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중동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2026 두바이 월드헬스 엑스포(WHX Dubai 2026)'에 참가해 2,167만 달러(약 325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며 중동시장 공략에 나섰다. 두바이 월드헬스 엑스포(구. 아랍헬스)로 명칭 변경

도는 김광래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춘천시·원주시·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과 수출대표단을 구성해 2월 8일부터 13일까지 UAE 두바이를 방문, 전시회 기간 동안 강원공동관을 운영하고 현지 핵심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도내 의료기기 기업 23개사가 참가해 1,154건, 5,084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227건, 1,572만 달러의 계약

추진과 595만 달러의 현장 계약을 포함해 총 2,167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난해 Arab Health에서 기록한 1,755만 달러 대비 23% 증가한 수치로, 상담액 역시 3,354만 달러에서 5,084만 달러로 52% 증가하며 모든 지표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주요 대상국은 중동을 비롯해 유럽(이탈리아, 스페인 등), 아프리카(에티오피아, 남아공 등) 등 다양한 권역에 걸쳐 있다.

특히 심스테크는 1,800만 달러, (주)오톨은 600만 달러, (주)뉴로이어즈는 503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하며 글로벌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방문은 전시회 참가와 세일즈 활동을 넘어 현지 핵심 기

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Dubai Hospital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과의 교류에 관심을 보였으며,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기기 및 의료기기 구매 과정과 시스템 파악으로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HCT 대학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등 도내 대학과의 인제교류를 희망, 대학간의 공동 R&D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 고도화와 현지화된 제품 개발로 이어갈 계획이다.

두바이 상공회의소와는 2-3개월 내 도내기업 방문을 요청, 양국(지역) 상공회의소 차원의 기업 및 관광 분야 교류 활성화 등 종합적인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민석 기자

동해시, 'LOCAL STAY 동해'로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

25년 한국관광데이터랩 기준, 동해시 외지인 방문객 전년 대비 6.9% 증가



별 마케팅, 체험형 콘텐츠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관광홍보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Look 동해) 관광안내체계 전반을 정비해 관광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관광홈페이지와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고도화, 관광안내소 및 무인안내 시스템 운영, 다국어·점자 관광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동해 관광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Open 동해) 팸투어, 관광설명회,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 언론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동해만의 관광 스토리를 적극 알린다. 특히 '여유동해' 팸투어와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활용 콘텐츠는 연중 지속형 홍보 모델로 운영해 단발성 홍보에서 벗어나는 점이 특징이다.

(Connect 동해) 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도 강화한다. 대만 관광박람회 참가, 일본 오사카 여행사 팸투어 운영과 함께, 전통한옥을 활용한 K-컬처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형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Act 동해) 레저·체험·이동·서비스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한다. '2026 원하던 바다'해안레저 프로그램, 소규모·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스태프투어, 시티투어버스·관광택시 운영 등을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평창군, 지역 주민 대상 피부과 무료 진료

평창군은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평창군보건의료원 2층 만성병관리실에서 피부과 무료 진료를 시행한다.

이번 진료는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피부 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진료 항목은 무좀, 습진, 가려움증, 만성 피부염 등 일상적인 피부 질환부터 한센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까지 포함되며, 진료에 따른 처방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평창군은 평소 피부과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피부 질환 관리를 위

해 매년 무료 진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센병은 피부와 말초신경에 병변을 일으키는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신경 손상이나 감각저하 등 장애를 남길 수 있어 빠른 발견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김순란 군 보건정책과장은 "한센병은 조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진료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의료적자를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원주시,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원주시는 지역 예체능 분야 유망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총 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사업은 국립공립공단과 (재)귀뚜라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총 5,500만 원 규모로 운영된다.

국립공립공단은 중학생 5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장기 후원을 맡아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 (재)귀뚜라미문화재단은 중학생 20명에게 각 100만 원, 고등학생 15명에게 각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 청소년들이 재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 및 단년도 후원 대상자는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되, 고득점자를 우선해 장기 후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예체능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원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 또는 그 자녀다. 최근 2년 이내 개인 종목 예체능 대회에서 3위 이내 수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 평가는 수상 경력(80점), 거주 기간(15점), 학교장 추천(5점)을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체육 분야 단체(팀) 종목의 경우 배점 적용의 한계를 고려해 단년도 후원 대상자 가운데 별도 인원(2026년 5명 이내)을 원주시체육회 추천으로 선발한다.

접수 기간은 3월 4일까지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자는 3월 13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2026년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원금은 발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협력 예매처에서 공연·전시·영화 관람권을 온라인 예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신청 후 2026년 7월 31일까지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금은 회수되며 재신청은 불가하다.

관람 가능 분야는 공연(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전시(미술·공예 등), 영화(영화진흥위원회 코드 등록 작품). 일부 행사상 공연 및 아동·가족 장르 등은 제외된다.

속초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소비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문화적 감수성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년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소통과 공능, 신뢰받는 세종 특별자치시의의

2026년 병오년(丙午年)

세종시의의회는 승풍파랑의 기세로 시민을 위한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승풍파랑(乘風破浪)’ 바람을 타고 물결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 특별자치시의의회
SEJONG CITY COUNCIL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jongcitycouncil/>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jongcouncil>